

광주상의 회장 補選 어떻게 되나

마형렬 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9월15일을 앞두고 앞둔 시점에서 1년6개월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회장에 2~3명의 입지자들이 자전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광주상의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P모씨는 임지를 갖고,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다른 P모씨도 본인의 부인에 도 불구하고, 은밀히 분위기 조성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형렬 현 회장은 사석에서 "마음을 비웠다"거나 "광주상의 회장은 의중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재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마형렬 現 회장 9월 15일 임기 종료

"추대나 경선이나" 의원총회서 결정

2~3명 입지자 벌써부터 물밑 작업

독자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적절한 후보'를 간접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 관계자는 "지난 선거가 지역경제계 갈등의 진원이 된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경선이 아닌 추대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상공회의원은 "굳이 경선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추대방식이 라면 3명의 부회장 등 현 임원진 가운데 한명이 추대되는 것이 모양새

가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3월 치러졌던 제 19대 광주상의 회장, 상공의원 선거는 혼탁·불법선거 시비로 인해 금호측이 마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소송을 제기,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의 증거로 금호측과 마 회장측이 19대 광주상의 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 오는 9월 보궐

선거에 이르게 됐다.

한편 광주상의는 마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 15일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잔여임기 회장 선출에 관한 의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B상공회의원은 "잔여임기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할 것인가, 추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의원총회 결과 굳이 회장이 필요치 않다면 대행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상의내 제도 개선소위원회는 제 19대 의원 선거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정관계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 개정안을 조만간 임시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달콤한 담양 멜론 맛보세요 김수공(왼쪽에서 세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 부분부장과 김보영(네번째) 담양군지부장이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센터에서 '대숲맑은 멜론'을 들어보이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담양군농산물연합사업단은 지난 6~8일 서울과 성남 유통센터에서 담양멜론 직판행사를 개최,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재래시장 사업영역 보장하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소상공인 간담회

"신용카드 업종간 수수료 차별 개선을"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이 광주지역에 부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퇴출 위기에 놓인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고유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불합리한 현행 신용카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 홍성근 과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는 9일 광주센트럴관광호텔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 과장은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개소, 매장면적 3천㎡의 대형

마트 14개소가 입점해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여기에다 조만간 6~7개소가 추가 입점할 것으로 보여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 과장은 ▲대형 유통점 출점제한 ▲재래시장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장 ▲중소유통점과 대형 유통점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홍 과장은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대형 유통점의 영업시간이나 출점위치 등을 제한해야 하고, 대중소 유통점간 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상품을 공동개발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신용카드의 업종간

수수료 차별 및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소상공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남산단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과 함께 퇴직금, 의료보통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그 부담을 회사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체의 현실에 맞게 결정하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능단체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업인이 올 2·4분기 중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사후 환급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 4~6월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 1·4분기 중 신청 누락분도 포함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농업용부직포, 농업용배지, 축산업용톱밥, 이앙기용 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밭세발이, 동력배토기, 동력에취기가 환급대상이다. 올 2·4분기부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과 화훼용 종자류, 채소재배용 차광막도 이번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 실의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남농협은 2004년 74억원, 2005년 81억원, 2006년 96억원의 환급신청금액을 대행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2금융 주택대출도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 6억이하 아파트 DTI 적용키로

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빚 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이 어려워진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2금융권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4분기 중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DTI(Debt To Income) =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을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3월부터 모범 규준을 도입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 5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DTI 40% 기준으로 고객 신용이나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사용금지 인공감미료 검출

일부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김치 37건을 검사한 결과, 10건(총 21만 4천100kg)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

가 나와 반송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인공감미료가 검출된 국내 수입업소 10곳에서 앞서 수입한 김치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클라메이트가 나올 경우 회수, 폐기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현재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5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실속형 '피오레 실버보험' 나왔다

대한화재, 최대 6억 보장

대한화재는 9일 고흥화 시대를 맞아 90세 만기(일부 질병은 80세 만기)의 실속형 상품 '무배당 피오레 실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대 65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 백내장, 녹내장, 골절, 인공관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해 병원을 자주 찾는 노년층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해성 담보, 치매진단비, 가족일상생활상해입 등 주요 담보를 90세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비혼연자의 경우 보험료의 2%가 할인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렌터카 보유 대수

국내 첫 3만대 돌파

금호렌터카(대표 이삼섭)가 국내 렌터카 업계로는 최초로 6월 기준 인가대수 3만대를 돌파했다.

현재 국내 렌터카 시장은 14만6천 300대이며, 금호가 3만2000대로 시장 점유율 20.6%를 차지해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금호렌터카는 2003년 1만대를 시작으로 매년 20%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6년 1월 2만대를 달성한 지 1년5개월만에 3만대를 돌파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여름 대특강 7월 3일 개강

★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반 수강생 모집 ★
주3회 오전 10시 / 오후 4시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한식 조리사반(2개월과정)
- 일식 조리사반(2개월과정)
- 일식 조리사반(2개월과정)
- 중식 조리사반(2개월과정)
- 빵합성반(2개월과정)
- 카빙과일조각장식반 (4주과정)

- 월 - 금 : 미혼수업 11시~7시
- 월 - 금 : 혼인수업 2시, 7시
- 화 - 목 : 양식수업 7시
- 화 - 목 : 양식수업 3시
- 화 - 목 : 중식수업 7시
- 화 - 목 : 과일조각장식 10시~14시
- 토 : 베이킹수업 10시
- 평일오리 : 주2회 Free Serve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 384-1984

MODISH 기러기 유통업체로 탄생시킨 선택의 기회

모디쉬갤러리 Sale

50% 할인

모디쉬갤러리 동점점 소개

062-385-3301-2 | 062-385-1984